

정의의 종

SNU LAW MAGAZINE
VOL. 36



최병조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1 2021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축사

김종보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 서울법대 이야기

최병조 명예교수 · 가장 행복한 선택, 서울법대에서 시작과 끝을 같이한 그의 로마법 여정
김재형 대법관 · 학자의 길, 법관의 길, 그 사이에서

김종보 원장 · 사당동 111번지의 건축사(建築史)

강광문 교수 ·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을 것을 당연하게

김용재 교수 · 모든 학생이 각자 ‘연구자의 길’을 걸길

리걸 마인드란 무엇인가?

김병현 학생 ·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법 공부

정민영 변호사 · 공익적 사명 혹은 밥벌이의 수단

대학동 블루스

김용원, 이명원 학생 · Be-공식 탁구대회로 Be Happy한 로스쿨 만들기

15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17 연구소·센터 소식

19 릴레이 도서 추천

20 기금 안내

SNU Law 캠페인 안내

Next Decade 기금 안내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현황 2022. 3. 1. - 2022. 8. 31.

예우 안내

- 정의의종 36호

- 발행일 2022년 9월

- 발행인 김종보 원장

- 편집인 최준규 학생부원장

- 기획 및 제작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랜 기다림과 묵묵한 지원의 끝

사랑하는 서울법대 졸업생 여러분. 긴 학업의 과정을 거치고 학위논문의 엄중한 심사과정을 통과해 박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우선 커다란 축하의 말씀을 건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졸업생의 가족분들에게도 오늘의 졸업식은 오랜 기다림과 묵묵한 지원의 끝에 오는 잔잔한 성취의 자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법대에 학부가 있었던 예전에는 가을 졸업식에 많은 학생들이 졸업해서 2월 졸업식과 별 차이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로스쿨이 도입되고 1월에 변호사 시험이 치러지면서 겨울 졸업식을 위주로 하는 학사운영제도가 정착되었고, 가을 졸업식은 일반대학원 석박사 학생들로 조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팬데믹으로 2019년 8월 이후 대면 졸업식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원상으로 회복된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어 그 자체로도 감개가 무량합니다. 물론 오늘 졸업하는 한 명 한 명이 그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오늘 졸업식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코로나 19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다양합니다. 학교에서 학사행정에 초래한 코로나의 영향도 지대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대면 졸업식이 불가능해지고, 줌을 통한 비대면 졸업식이 일반화되면서, 기존의 대면 졸업식은 지나간 일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면 졸업식을 준비하면서 어떤 공간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현장에 참석할 것인지 또 교수님들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 등에 대해 마치 처음 치르는 졸업식처럼 준비해야 했습니다. 겨우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오랜 기간 지속해 온 다양한 절차와 경험들이 모두 시간 속으로 묻히는 경험을 하면서 학문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됩니다.

서울대학교가 개교하고 최초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1947년의 졸업식은 어땠을까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이 있었고, 가난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지금으로 이어지는 서울법대의 졸업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그간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학위를 수여해주셨던 수많은 서울법대의 은사님들과 그들에 의해 배출된 서울법대의 졸업생들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8월에 다시 졸업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졸업식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울법대의 학문적 전통을 이어갈 박사과 석사들을 배출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교육과 학습의 단계를 넘어 스스로 논리를 만들고 글을 쓰는 학술연구의 한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자리의 졸업생들은 이제 배우는 학생에서 연구하는 학자로, 또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수자로서의 자격을 오늘부터 부여받게 됩니다. 서울법대의 높고 순수한 학문적 정통성이 여러분들에게 내려가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훌륭한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석

사학위를 받는 여러분들도 다시 박사과정으로 입학해서 학문의 길을 계속 가기를 축원합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세속의 사회에서 말하는 출세와는 대비되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부귀와 권력은 커다란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명예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세상에서 말하는 요즘 시대의 명예와는 다른 것입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구실에서 쓴 자신의 논문으로 그 가치를 증명하고 그것으로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고 새롭게 고민하는 긴 시간을 보내면, 일 년에 두세 편 정도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물론 이보다 더 많이 쓰는 유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 논문은 대중들의 관심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 10년간 법학 논문이 유명해져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일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면 학자가 하는 일이 세상의 관심에서 얼마나 먼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이 쓴 이 논문들은 오랜 시간 자기의 자리를 지키다가 대법원 판례를 변화시키고, 또 국회의 입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그래도 논문이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들은 너무도 오랜 기간 자신의 모든 것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논문 쓰기에 정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그 성과로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간에 있었던 온갖 학문적인 허들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생들이 느끼는 학문적 성취와 그에 대한 자긍심, 만족감은 아마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지에 오른 것을 서울법대 교수님들을 대표해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법대는 다양한 법률가, 판료, 정치인, 언론인들을 배출했고 그 일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만, 서울법대는 다른 한편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우리나라의 주요대학에서 법학교육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서울법대가 권력과 출세를 지향하는 대학으로 보일지라도 서울법대는 높은 학문적 경지를 추구하고 순수한 아카데미즘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는 대학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이 서울법대의 학문적 전통과 정통성을 이어가는 진정한 학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법대 우창록 동창 회장님과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논문까지 지도해주신 법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8. 2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김 종 보

가장 행복한 선택,
서울법대에서
시작과 끝을 같이한
그의 로마법 여정



최병조 명예교수

“교수로 지내다 보면 누구든 이 정도 말은 다 하게 돼 있어요.”라는 말씀과 달리 최병조 명예교수의 업적은 선불리 ‘누구든 갈 수 있던 길’이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70년대 초 청계천 헌책방에서 라틴어 문법책을 구해 로마법을 독학하던 청년이 세계에 수많은 논문과 저서 그리고 후학을 남기고 2018년 2월 서울법대 교수직에서 퇴임하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의 ‘법학의 원류’를 찾아가는 즐거운 로마법 여정에 함께했다.

Q. 법대 재학 중 로마법의 길을 선택한 이유

입학하고 나서는 도서관에 거의 들어가질 않았어요. 칸막이에 골판지며 신문지며 해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고시 공부하느라 애들 쓰고 있는데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하나 회의도 있었죠. 그런 식의 현행법 공부에는 별로 취미를 못 들었달까. 그래도 법 공부 자체는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입학하고 나면 원래 좀 놀아야 하잖아요. 잘 놀다가 2학년 1학기 때 충격을 받았습시다. 시험에서 겨우 범조문을 베껴놓고 나왔는데 친구들은 생전 모르는 얘기들을 줄줄이 풀어놓고 있었지요. 법 공부는 당일 치기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대천 해수욕장으로 갔어요. 텐트 속에서 민법 전집 일회독에 들어갑니다. 읽다가 집중이 안 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며 결국 마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때 괄운직 선생님 교과서에는 어떤 제도가 있으면 로마법에서 유래한다 이런 한두 줄이 있었거든요. 로마 문명은 천 년도 전인데 그때 벌써 나는 지금 이해하기도 바쁜 이걸 만들었다니까 호기심이 많이 일었죠.

Q. 당시로서는 포장되지 않은 로마법의 길, 그 시작

우리 중앙도서관에 가면 구간(舊刊) 도서가 있어요. 45년 전 일본 사람들이 모아놓은 자료들인데 법 쪽은 거의 전부가 로마법 책이에요. 특히 『로마법대전』 같은 기본문헌은 두세 질씩 막 있어요. 더 놀라운 건 거기에 연필로 일본 사람들이 공부한 흔적이 있어요. 우리가 해방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이 바로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지만, 당시의 70년대 전반까지도 그 구간 도서를 아무도 안 들여다봤어요. 먼지가 켜켜이 쌓인 게 그대로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2외국어로 된 도서들조차 찾아 읽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미 근대화의 초기부터 세계의 온갖 도서들을 이렇게 많이 들여다 놓고 열심히 공부해서 제도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죠. 그러면서 로마법에 빠졌고, 공부를 위해서는 라틴어를 해야 했기에 청계천 중고 서점가를 돌다가 영어로 된 문법책을 구해 독학했죠.

Q. 괴팅겐대 유학 계기와 떠나면 타지에서 법학도로서의 삶

로마법이니까 로마로 가야 할 것 같아서 이태리 대사관에 연락했는데 장학생 뽑는 게 없다고 해서 독일 쪽으로 갔죠. 첫 학기에는 서양법제사 공부하고 세미나도 듣고 하다가 그다음 학기에 오코 베렌츠(Okko Behrends) 교수의 로마법 강의가 개설됐어요. 너무 좋았던 건 그때만 해도 원전을 읽고 의미를 해석하고 현행법하고 비교하고 그런 토론식 수업을 하는 데는 거의 없었는데 그 교수가 이걸 했어요. 지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루돌프 예링 관련 세미나에 참여했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관해 발표했는데 주변에서 발표가 아주 좋았다, 더 연구해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래 그 주제로 학위논문을 작성하게 되었고 원래는 교수 논지만 실리는 괴팅겐 법학총서로 출판되게 되었죠. 여러 유럽 학자들이 서평을 써줬는데 그게 세계적인 로마법 학술지에 실렸습시다. 그렇게 유학은 성공적으로 마쳤죠. 법학연구소장일 때 박사학위논문 총서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경험 덕분이지요.

Q. 로마법은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로마의 법률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담론의 장을 펼칩니다. 우리가 법률문제를 다루다 보면 어떤 경제적·정치적·정책적인 고려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든가 들어가고 싶은 영역이 많잖아요. 반면 로마법은 지위고하와 시간·장소를 불문하고 완벽히 평등한 관계에서 순수 법리만으로 다뤄요. 그들은 그 담론을 철저하게 밀고 나갑니다. 또 로마법 학자들은 공권에 의해 규범이 창설되면 최대한도로 존중하면서 지성적인 작업을 합니다. 가령 법정관이 고시를 선포하면 ‘이 고시는 극히 정당하다.’라고 주석을 일단 붙여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사람들은 법을 훌륭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 작금의 현실을 보면 입법자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그게 뭔지 모르는 형국이라 안타깝고, 로마의 리걸 마인드가 거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로마법의 정신 중 강조하고 싶은 부분

로마법이 민법을 강조하는 부분은 그 가치가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로마 법률가들은 공법적 분쟁은 관료 조직에 맡기고 사법을 주로 다룹니다. 그들은 사법은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가 걸려 있으니 그것만큼은 정의롭게 해결해줘야 한다는 것을 소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법을 그렇게 강조해서 법을 발전시킨 곳은 로마밖에 없잖아요. 결국 로마 민법은 개개인의 인격적이고 재산적인 삶을 그만큼 중시한 것이죠. 또 로마법은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로마 민법은 인법(人法)부터 가르치고 다음에 상속법을 가르쳤습시다. 상속은 전 재산이 걸린 거잖아요. 그들 생각에 사소한 매매보다 자기 집의 전 재산이 걸려 있는 것을 상속받느냐 못 받느냐가 더 큰 문제였던 것이죠.

Q. 서울대 로스쿨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정말로 학생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일반인들이, 남들이 뭐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직접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특히 법학도들은 앞으로 직업적으로도 모든 케이스에 직접 접해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잖아요. 제가 법사회학 같은 자리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한국법제사 쪽에서는 ‘자료가 부족하다.’라고 하며 발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봤더니 부족한 게 아니라 차고 넘쳐요. 이를테면 조선왕조실록에는 상당한 분량의 이론적이고 해석론적인 토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직접 보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기에게 재밌게 다가오는 것을 하라는 말도 하고 싶어요. 50년 동안 여러분이 일한다고 치면 짧은 세월도 아닌데 그 시간 동안 뭘 할 것인지 계속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행복한 방법입니다.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팔자 좋은 사람들이예요. 팔자 좋은 거를 굳이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즐거운 일을 하라. 즐거운 일은 힘들지 않고, 하고 나면 또 그다음 것도 도전하고 싶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Q. 20대 초부터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로마법에 몰입하고 난 사회

사람에게는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있는 거라서 ‘할 수 없다. 나는 사법시험 대신 로마법을 하겠다.’라고 선택했는데 개인적으로 여전히 행복합니다. 다만 더 많은 사람이 이런 재미를 느꼈으면 좋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안타깝고 합니다. 어쨌든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로마법을 ‘겉없이 덩벼들어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남지만, 상황의 한계이기도 했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학자의 길, 법관의 길, 그 사이에서



김재형 대법관

올해 9월 김재형 대법관이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6년의 임기를 마친다. '김재형 대법관님이 쓰신 판결은 쟁점이 뚜렷하여 공부하기 좋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난 6년간 그가 만들어낸 판례들은 로스쿨 학생들이 법학 공부를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하여 중요한 판결들을 많이 내놓았다. 퇴임을 한 달여 앞둔 여름, 막 선고를 마치고 대법관실로 돌아온 김재형 대법관을 만나 그가 걸어왔던 학자의 길과 법관의 길에 대한 소회를 들었다.

고등학교 시절, 김재형 대법관의 생활기록부 장래희망란에는 항상 법관과 교수가 함께 있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할 무렵에는 교수가 되기를 희망했다. "서울대 법대 입학 면접에서 김철수 교수님께서 면접관으로 들어오셔서 진로를 물었을 때는 교수가 되고 싶다고 답했다. 교수님께서 다시 무슨 교수가 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법학교수라고 답하면서 헌법, 민법 등 세부 전공에 대해서까지 얘기해야 하는 좋은 상상도 못했다."며 즐겁게 학부 시절을 회고한 그였지만, 4학년 때 존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쓴 학사학위논문이 심형섭 교수님의 추천으로 서울 법대 「피데스」 학술지에 실리기도 하는 등 이미 두각을 드러냈다.

학부 때에는 사학과 철학 등에도 관심이 있었던 김재형 대법관이 본격적으로 민법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다음이었다. "사법연수원 시절 판례 전문을 자세히 읽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원이 판단한 이유나 논리를 보면서 민법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그는 1991년에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재형 대법관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1992년 3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을 거치며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한 1995년 9월 직전까지 법원에서 근무하였다. "민사·형사 사건, 반론보도나 출판금지 등 가처분 사건, 도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김재형 대법관이 회고한 이 시기의 판사 생활은 그가 교수로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에도 큰 자양분이 되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교수로 부임한 21년 동안 김재형 대법관이 걸어왔던 학자의 길은 법관의 길과 잇닿아 있었다. 판결을 내리는 것과 연구를 하는 것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질문에 김재형 대법관은 "판결은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인 반면 연구는 관심 있는 분야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깊이 있게 연구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지만, 판결을 할 때든 연구를 할 때든 법적 사유, 법적 논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답했다. "강의와 연구를 하고 학생들과 토론도 하며 학회에서 발표하고 다른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같은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었지요. 이것이 제가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을 하고 판결문을 쓰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합니다."라는 김재형 대법관의 이야기에서 그가 걸었던 학자의 길과 법관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대법원에서 김재형 대법관이 내린 판결들은 그동안 그가 학자로서 해왔던 고민의 결과물도 많았다. 주심 재판관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한 2018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그가 석사과정 중이었던 1989년에 썼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리포트에서부터 시작된 고민이,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공유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2020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1997년 기존 판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했던 글에서부터 시작된 고민이 담겨있었다. 실제로 재판연구관들 사이에서는 김재형 대법관이 취임한 이후, 판결의 문장이 간결하고 쟁점이 명료하게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결의 실제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평들이 있다.

법조인의 길을 가려는 후배들에게 김재형 대법관은 학생으로서 배우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공부해서 보충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순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례, 교과서, 논문 등을 철저하게 탐독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나중에 법률가로서 살아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김재형 대법관의 말에서는 그가 그동안 학자의 길과 법관의 길을 함께 걸어오면서 겪어온 삶의 가르침이 담겨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완 학생기자

사당동 111번지의 건축사(建築史)

1970년대 사당동 111번지는 사대문 외곽의 번두리 동네였다. 강북의 피난민과 판자촌 주민들, 일자리를 찾아 향도한 농민들이 우연히 뒤섞여 살게 된 이 동네는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일주일에도 두세 채씩 새집이 들어섰고, 도로는 관습으로 빚어졌으며,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고 헐리고를 반복했다.

그곳에서 살며, 공부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했던 한 중학생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이 되어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매미가 우는 여름날 그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삶은 묘하게 사당동 111번지의 건축사를 닮아있었다.

도시계획: 법학자로 성장하는 과정

111번지 공터에는 아무런 도시계획이 없었다. 그때그때 필요로 지어진 건물들이 숲을 이루어 지금의 사당동 일대를 이루게 된 것이다. 김중보 교수의 유년기에도 법률가가 되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없었다. 고등학교 시절 어렵고 위험하던 동네에서 탈출하고자 열심히 공부하여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독재정권 휘하 막연한 부채 의식과 시대적 우울감에 시달리며 학부를 다녔다.

"뜻밖에도 이런 우울감을 타개하는 데에 공부가 안정제가 되었고, 운 좋게도 행정법 교수님들의 공동 지도하에 석박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는 전남대학교 교수로 처음 임용되었을 때 기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직업이 주는 안도감을 넘어서 "평생 글 쓰고 연구할 수 있다는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신축: 건설법 분야에의 공헌

철근과 콘크리트가 겹겹이 쌓이어 하나의 건물이 된다. 한사코 부인하지만, 김중보 교수는 한국 건설법 체계를 "신축"한 장본인이다. 그가 집필한 수많은 칼럼, 70여 편의 논문, 십여 개의 단행본에 관해 묻자 그는 "각기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성한 파편들이 모여 건설법 분야라는 작은 돌담이 된 것"이라고 답하였다. 기속행위에 결합한 재량행위와 같은 행정법 총론의 쟁점부터 주상복합 건축에 도사리는 실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돌담은 각양각색의 돌맹이로 이루어져 있다.

건설법 분야는 아직 신축 중이다. "행정법과 민사법을 아우르며 수많은 판례군을 보유하는 분야, 한국 사회가 변화한 궤적을 이해하는 데에 통찰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공부의 외연이 완성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 더 높고 큰 구조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축: 학생 결의 멘토

경계가 발전하면서 111번지 건물들은 앞다투어 층고를 높였다. 기존의 토대를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증축"은 김중보 교수의 수업 방식을 연상케 한다. 학생들이 읽어온 판례를 바탕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 "법률가처럼 사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로스쿨 1기때부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당하더니 학생들도 점점 열심히 준비해오더군요." 때때로 어려운 질문에 딱혀 정적이 흐르더라도, 그때야말로 학생들이 긴장하고 배우는 증축의 시간이다.



김중보 원장

수업 방식의 영향인지, 마니아층이 두텁다. 기수마다 김중보 교수의 수업을 모두 수강하고 논문까지 지도받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동기들 사이에서 "중보키즈"라 불린다. "합당한 용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학생들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 학기 야외수업을 기획하여 건축물을 탐방한 이후 학생들과 뒤풀이를 여는 꾸준함은, 전남대 법대 고시반 지도교수를 담당하며 보여주었던 그의 학생친화적인 기질의 연장선에 있다.

리모델링: 법학전문대학원의 미래

지금의 111번지 주민들은 멀쩡한 건물 외관을 그대로 둔 채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리모델링한다. 김중보 교수가 원장으로서 가지는 사명감은 리모델링에 가깝다. "2년 임기의 원장은 대학의 근본 방향을 급격하게 틀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서울법대가 유지해 온 어젠다를 큰 틀에서 유지하는 선에서 몇 가지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공간 차원에서는 17동 앞의 광장을 개선하고, 학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선택법과 기초법 강좌 개설에 힘쓰고자 합니다. 스포츠 과목을 개설하여 학업과 운동의 병행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큰 방향은 책임감 있고 과감한 후속세대 양성이겠지요."

계획보다 사람이 먼저 존재했던 사당동 111번지는 나름의 정취와 체계를 갖춘 도심지가 되었다. 그곳에서 자란 중학생은 이제 선구자적인 법학자가 되어, 불분명한 청사진이라며 십수 년간 불안의 눈초리를 받으며 자라온 법학전문대학원을 이끌게 되었다. "세상의 목표가 흩어졌을 때도 새로운 목표를 잘 설정하여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학교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회 다양한 영역과 접점을 가지고 협업하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집단이라고 인식되는 데에 힘쓰겠습니다. 좋은 법학도와 좋은 학생들이 있음을 믿고 지켜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중보 원장은 2007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여 행정법을 가르치고 있다. 김중보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법과대학원에서 행정법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전남대학교와 중앙대학교에서 차례로 행정법 교수를 역임한 뒤 모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위원, 제1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학회장,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건설법 분야에서는 입법지원위원, 건축시험회 법제전문위원, 법제처 법령 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공동대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에서 학생기자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을 것을 당연하게



강 광 문 교수

중국 지린성의 중부 메이허커우라는 소도시에서 자란 강광문 교수는, 조선족 학생으로서 드물게 대입시험에서 문과 수석을 차지했다. 이후 베이징대 국제정치학과에서 한 반 30명 중 유일한 소수민족으로 정체성을 고민했던 그는, 주로 역사와 철학책들을 탐독하며 공부를 이어나갔다. 따라서 이후 도쿄대로 유학을 가 일본과 독일의 헌법을 비교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조선족으로서는 두 번째로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취임하게 된다. 강광문 교수는 이처럼 다양한 문화권을 겪으면서 일국의 시선에 갇히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당연하지 않을 것을 당연하게 보는 시선”을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당연하지 않은 그의 시선으로 한중일의 법문화와 비교법에 대한 통찰을 들었다.

우리에게 당연한 한국의 대학과 법에 대해 서도 그의 시선은 당연하지 않았다. 먼저 대학 문화에 관해서는 그는 일본은 안정된 연구를 하기에 좋으나 다소 정적이며, 중국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반면 그 과도함이 문제라고 평가했다. 한국, 특히 서울대학교는 그 중용을 지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너무 좁은 범위에서 지나치게 경쟁에 몰두하는 학생들이 다소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차이가 법문화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그의 통찰은 흥미로웠다. 특히 정치와 법의 관계의 측면에서 일본은 정치가 다소 생동감을 잃었기에 법학이 정치와 독립하여 자율성을 가지나, 정치가 법학에 필요한 자양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반면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중국은 법과 법학이 정치에서 독립되지 못하고 정치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측면을 한계

로 지적했다. 한국은 법과 법학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정치가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최근 모든 사회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으로 돌아볼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국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강광문 교수는 법학 공부 역시 비교법적 시선을 갖춤으로써 역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법학 자체가 근대 이후에 계수되어서 형성된 학문이며, 특히 한국의 법학은 일본을 통해 계수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조문, 판례, 학설만으로는 이론,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학은 그야말로 ‘개념의 학문’인데, 우리가 쓰는 법학 개념이 일본에서 번역된 한자 용어라는 것을 고려해볼 때 특히 일본과 중국의 법률용어 이해를 통해 개념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광문 교수는 마지막으로 로스쿨 학생들에게도 변호사시험으로 필수과목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비교법 혹은 기초법 과목을 수강해볼 것을 권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는 시선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앞으로의 법조인 생활에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그의 메시지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의 법조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살피볼 수 있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학생기자

모든 학생이 각자 ‘연구자의 길’을 걷길



김 응 재 교수

Q. 올해 3월 교수로 채용되기 이전의 경력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2008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10년 사법연수원을 39기로 수료한 후 3년 동안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판사로 임관해서 9년을 근무하고 올해 3월 1일자로 서울대학교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Q. 학생들을 마주한 첫 학기, 교수님의 소감이 궁금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 형사법 실무과목을 강의했었는데요. 형사소송의 증거와 관련해서 녹음테이프에 대한 논의를 막 설명하다가 불현듯 ‘학생분들은 녹음테이프가 뭔지를 알까?’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에 90년대 후반쯤이면 이미 테이프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 같아서 물어봤었어요.

Q. 로스쿨 학생에게 수험법학 외의 ‘연구’는 낯선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든 로스쿨 학생분들한테 ‘수험법학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나가서 실제 사건을 마주하면 책대로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까. ‘시험에 나오는 만큼만 공부하고 졸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저는 교과서나 판례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판결과 다른 판결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든지 하는 모순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 주변에 물어볼 수도 있고 책이나 판례평석을 더 찾아보는 거죠. 해결이 안 된다면 또 찾아보고, 이런 것이 결국 연구거든요.

그렇게 결론을 나름대로 도출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대법원도 똑같이 판단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흥미가 있다면 그야말로 학문 자체를 일로 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시험 공부 하는 사람, 연구하는 사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Q. 재판 대신 연구 활동과 로스쿨 강의를 선택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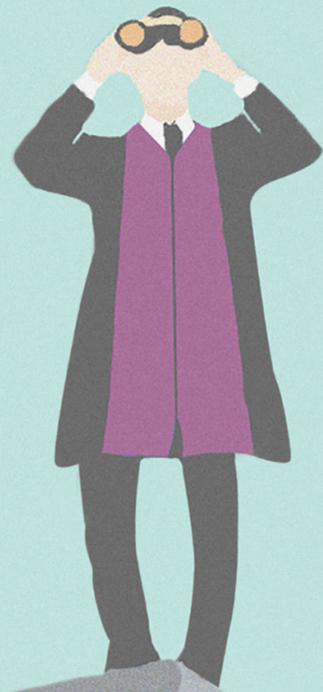
저는 법원에 판사로 있으면서 깊이 고민한 주제가 있으면 정리해서 관련된 글을 쓰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판결문 등에 그 글이 채택되는 때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느끼는 보람이 많이 컸고, 이제 제가 꼭 판사를 해야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는 확신을 했달까요. 한편으로 판사로 일하면서 밀려오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다 보니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기회가 와서 학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Q. 재학생, 특히 다음 학기에 교수님의 [형법 2]를 수강할 1학년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시험에 대한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은 1학년에서는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학생분들은 일단 변호사 시험을 붙어야 하니까, 효율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일을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습관 내지는 어떤 생각하는 방식을 단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과서의 말들이 실제 사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대법원이 어떤 명제를 선언했을 때 그게 어디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다 실제 사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한편, 여러 학설이 대립해서 각각 실제 사건에 적용해봤더니 결론이 같은데 왜 싸우고 있지? 그렇다면 덜 중요한 문제이죠. 이렇게 공부해야 법학 공부가 이해하기 편하고 덜 지겹지 않을까요.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리 결 마 인 드 란 무 엇 인 가 ?



매년 새롭게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본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안에 ‘리결 마인드(legal mind)’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교수님과 선배님들께서는 훌륭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리결 마인드’를 길러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 정체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는 막연하기만 합니다. 물론 리결 마인드가 무엇인지 배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기 초에는 단순히 기초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력이었던 것이, 학기 중반에 가면 일종의 논리력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기말고사를 응시할 즈음에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법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능력이 되어 대체 그 개념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을 따름입니다.

심지어 권위있는 법률용어 사전인 『Black’s Law Dictionary』조차 리결 마인드가 ‘잘 훈련된 법률가의 지적, 법률적 능력 또는 입장’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사전조차 동어 반복적 정의로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을 회피한다면, 이 신기루 같은 불확정개념은 단순히 사용자의 용법에 따라 달라지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의 용례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순한 의심까지 들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리결 마인드’라는 개념 자체가 법률가 집단의 판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법률 교육에서 학생들을 위압하기 위해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에 불과하다는 세간의 비판에 동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까이 가고 싶으나 닿을 수 없는 ‘리결 마인드’에 대해 저희 학생기자들은 교수님들에게 리결 마인드란 대체 무엇인지 직접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도 리결 마인드의 함양을 위해 고투하는 로스쿨생들의 공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는 마음을 모아, 서울법대의 총 15명의 교수님께서 귀한 통찰을 들려주셨습니다.

* 이하에서는 존칭은 생략하고, 가나다 순으로 교수님 성함과 그 답변만을 표기하였습니다.

강 광 문

법률과 법학이 지니고 있는 아래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리결 마인드(legal mind)’의 함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1) 법체계는 규범/당위의 체계이지 사실/존재의 체계가 아니라는 점. 현실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금지나 허용 등에 관하여 가설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조문과 범명제는 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인과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진실과 거짓의 기준도 적용받지 않는다.
- 2) 법학이 학문일 수는 있지만 과학이 아니라는 점. 법학은 유일한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제시할 수도 없다.

고 유 강

주어진 문제에서 '상식적인 합의'와 '합의된 상식'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나름의 수렴값을 찾아가는 능력.

고 학 수

법과 관련된 맥락에서 연역법적 사고와 귀납법적 사고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역량. 연역법적 사고는 주로 법리적 기반을 견고하게 쌓는 것을, 귀납법적 사고는 주로 사실관계나 데이터를 통해 일반화를 하고 시사점을 잘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역법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면 경직적이고 교조적인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고, 귀납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이론 없이 공허해 질 수 있다. 그래서 유연한 동시에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김 화 진

특정 사회문제, 국가적 과제를 놓고 법률이 그 해결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찾는 것도 ‘리결 마인드’를 가진 법률가의 역할이다. 법률이 분쟁해결과 인권보호 뿐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범경제학의 이론들이 바로 거기서 출발한 것이다.

박 상 철

리결 마인드는 아마 사후적(ex post) 관점에서 형평을 따뜻하게 실현하면서 사전적(ex ante)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냉정하게 유도할 수 있게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선을 그어주는(line-drawing) 능력이 아닐까?

오 영 결

리결 마인드란 다음 2가지 논증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고 방식을 말한다:

- (1) 규범적용논증 - 법률삼단논법이 사용된다;
- (2) 규범해석논증 - 법내·외적 충분근거율이 사용된다.

이 계 정

리결 마인드는 멀리서 산세(山勢)를 바라보는 시선과 가까이서 산세를 이루는 나무 하나 하나를 살피는 시선의 겸비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파고드는 사고가 리결 마인드인 것입니다.

요건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미시적 사고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보편적 법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 보편적 법리를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산세를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 범

법률가의 사고 내지 존재가 사회윤리 일반 등과 근원적으로 별다른 독단적인 것처럼 리결 마인드라는 말이 쓰이곤 해서 저는 이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릇 법적 사고는 부분적이며 관계적이기에, 다른 가치 판단과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가운데 분명해지기에, 그저 그와 같은 정체 불명의 단어가 크게 들리는 순간을 의심할 뿐이다.

이 정 수

리결 마인드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살인범을 처벌해야 한다는 “결론”은 여느 사람이 모두 가진 마음이지만 찬찬히 구성요건을 따지고 조각요건을 살피는 “과정”을 거쳐 살인범을 처벌하는 것은 법률가만이 가진 리결 마인드이다.

정 선 주

리결 마인드를 갖춘 좋은 법률가는, 정확한 법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살펴본 후,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선택해야 한다.

최 봉 경

법이 어느덧 말과 글의 정글이 된지 오래다. 세상이 복잡해져 갈등의 양상도 그 해법도 미로 찾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법률가의 리결마인드는 정글과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이정표이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정표가 필요해 보인다. 새로운 이정표가 만들어져야 할 때도 있고 혼동을 주는 것은 폐기하거나 바꾸어야 한다. 법학도여, 부디 길을 잃지 말기를.

최 준 규

“수학적 논리력과 문학적 상상력의 결합”
“정의롭고 공평한 결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 다른 학문(가령 경제학, 심리학)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러한 힘을 기를 수 없지만 다른 학문이 리결마인드를 대체할 수는 없음. 존재로부터 당위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평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내적 원동력. 그리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열린 논리. 실천적이지 않은 리결마인드는 반쪽짜리 리결마인드임.”

한 인 섭

Key words: 절차, 가치(평등과 인간존엄성), 합리적 의심, 이의가능성.
* 전체 대화록은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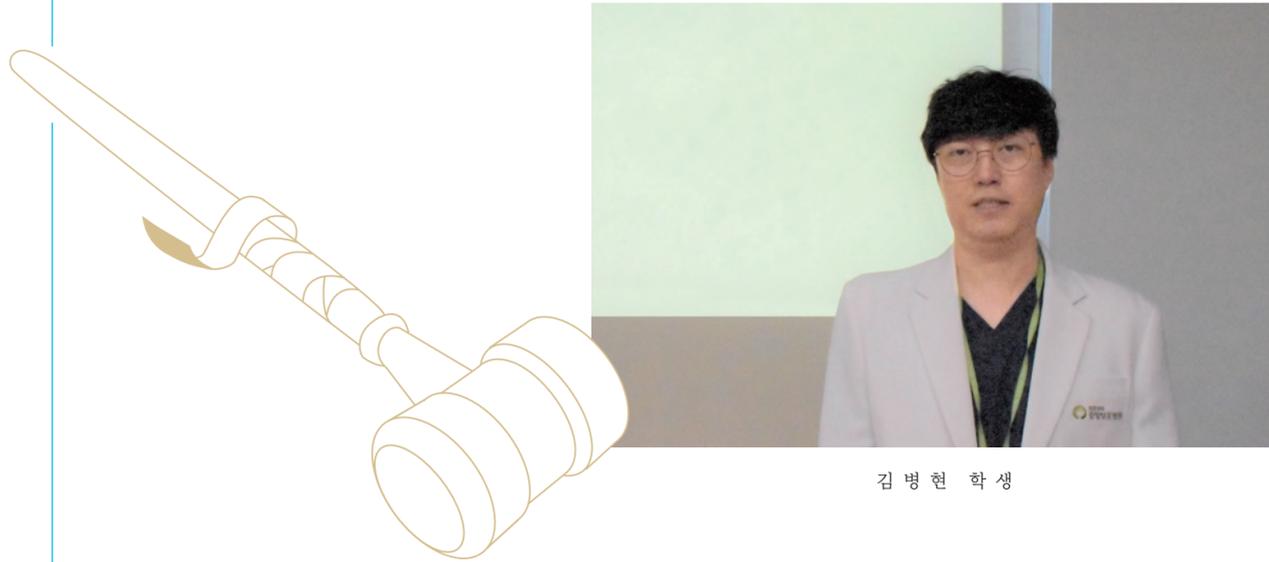
Masaki Iwasaki

A system of thought to identify essential facts for the issue at hand, evaluate them based on specific standards, such as natural and social sciences, and apply the law.

Stephan Sonnenberg

A passion for the process of systematically analyzing legal or social problems and subsequently proposing viable solutions that safeguard the fundamental dignity, agency and aspirations of those who might benefit from one's efforts.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법 공부



김병현 학생

하나라도 제대로 공부하기 어려운 의학과 법학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 지난 2021년 13기로 입학한 김병현 학생이다. 중앙보훈병원에서 막 ‘김할머니 사건에서의 법적 쟁점과 안락사 논의’에서 세미나를 이제 막 마친 김병현 학생을 만나, 그가 근무하고 있는 응급실에서 의사와 법학도로서의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소회를 들어보았다.

김병현 학생은 자연과학도로 대학생활을 시작하였다. 카이스트 화학과에 04학번으로 입학한 그는 졸업한 2008년에 서울대 의대로 편입했다. 의대 진학의 계기를 묻는 말에 김병현 학생은 “부모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을 하고 싶었다.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화학도로서 연구를 이어 나가 노벨 화학상까지 받은 Ciechanover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다.

이후 김병현 학생은 전임의 펠로우십 과정을 거치면서 로스쿨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분당 서울대 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전임의 과정을 밟으며 연구를 이어 나가고 있던 무렵 안락사를 비롯한 의료법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법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여기던 중 의대를 졸업하고 마이애미 로스쿨에서 학위를 취득해 의료윤리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Charles L.Sprung 교수의 이야기를 접하며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그는 법 공부를 통해 안락사 등의 의료법 이슈에 대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마음먹었다.

의사로서 거의 10년 정도를 근무하다 로스쿨에 진학한 김병현 학생에게 비록 법학은 낯설었지만, 법을 공부하는 것과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은 큰 시너지로 다가왔다. “법 공부를 통해 의사로서 무엇이 허용

되고 허용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며 우리 학교 이계정 교수님 말씀처럼 ‘존재 안정감’을 느꼈다.”는 그는 “계약관계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의료법을 공부하며, 의대에서 이야기하는 가부장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는 다른 관점에서 의료 문제를 바라볼 수 있었다.”며 법학 공부에 매력을 느끼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최근에는 응급실 폭행 문제와 관련해 병원 레지던트를 대리해 고소를 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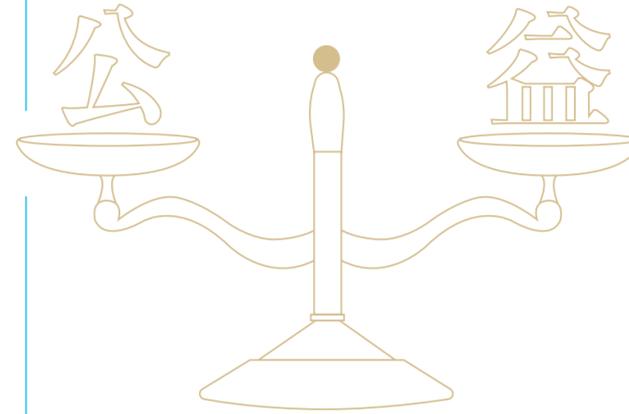
의사 일과 법 공부를 함께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김병현 학생은 “응급환자가 생긴 경우 응급환자를 치료하며 날을 새고 다음 날에 시험을 보러 간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조 조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함께 스터디하는 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병현 학생은 앞으로도 로스쿨에서의 법학 공부와 의사 일을 병행하며, 졸업 후 의료법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계획이다. “나이 드신 환자분들을 많이 상대한 보훈병원에 있다 보면 안락사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안락사 이슈에 대한 관심을 밝힌 그는 “일단은 의사로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 충실하게 진료하는 한편, 법학도로서 더 깊은 공부를 위한 기본기를 다져 나갈 것이다.”고 다짐을 밝혔다.

환자에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 의학과 법학 공부 모두에 매진하는 그의 이야기에서 그만의 사명감이 묻어져 나왔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승환 학생기자

공익적 사명 혹은 법벌이의 수단



정민영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 신문에서 2년간 근무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2기로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회 졸업생부터 기수별로 기금을 만들어 공익변호사의 길을 가는 동기를 돕는 ‘공익기금’ 활동이 이어져왔고, 정민영 변호사는 두 번째로 공익기금의 후원으로 공익변호사로 2년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일했다. 이후 법무법인 덕수에서 언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일하면서 공익사건을 병행하고 있는 그를 만나 공익변호사의 삶, 나아가 변호사로서 공익적 사명과 생계유지에 대한 균형에 대해 물어봤다.

Q. 공익변호사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로스쿨 3학년 시절 공익기금 준비하는 동기들에게 추천을 받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여러 고민이 있었지만, 로스쿨 동기들의 후원을 받아 비영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막연하게나마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들에 관심이 있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찾아가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고 했는데, 얘기가 잘 진행되어서 2013년 초부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간사 겸 변호사로 활동했다.

Q. 변호사로 어떤 공익적 활동을 해왔는가요?

사실 공익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좀 애매한 면이 있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관심을 뒀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일할 때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

한 행정소송 대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법정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이런저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2017년 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사건은 5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사무실을 운영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이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Q.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면서도 공익적 관심을 놓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요?

영리와 무관한 일들을 해나가려면 시간이든 돈이든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먼저 연락을 하기도 하고, 소송을 기획해 시민단체에 제안해 보기도 한다.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Q. 마지막으로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거나 공익 사건에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공익적 관심을 살리면서 법률가들이 갈 수 있는 진로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잘 닦여져 있는 길을 가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용기를 내서 사람들이 관심을 덜 두었던 분야나 영역에 법률가로서 관심을 가져본다면 많은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이준엽 기자

대학동 블루스

시간이 멈춘 공간

외부와 단절된 공간, 과거의 공간, 운동권의 활기와 고시생의 끈기가 공존하는 공간. 녹두 거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이미지가 있다. 대부분은 70년대 후반 대학동 주막 '녹두집'에서 유래된 녹두라는 이름이 주는 옛 정취와 관련한 것이다. 사법시험이 사라지고 감염병을 겪은 대학동도 여전히 '녹두스러울지' 문득 궁금해지던 늦은 저녁, 그곳 사람들을 만났다. 장소는 창호지 문 사이로 가로등 불이 겨우 들어서는 한 막걸리 주점. 다채로운 대학동 블루스의 선율을 소개한다.



오종환 - 번데기의 변태(變態)

녹두는 아무래도 '변태'의 장인 듯하다. 예로부터 굶직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두 녹두로 모여들어 각자만의 '변태'를 준비했다. 종환은 과거에 행정고시를 준비했고, 지금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혼자 밥 먹기 좋은 식당, 아무렇게나 가도 좋은 카페들 목록을 술술 읊는 그의 모습에서 인고의 과정이 엿보였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버버스를 타면 익숙한 얼굴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모자를 눌러쓴 누군가 다가와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준다거나, 부스스한 한 쌍이 다가와 언제부터 연애를 시작했는지 말해주는 때가 종종 있는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지요."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싫진 않을지언정 어색해진 사람을 마주할 때도 많다고 한다. 그러더라도 그저 그들의 변태가 성공하길 빌 뿐이다.



박은우 - 서울에서의 고향

누군가에게는 녹두가 고향이다. 은우는 일찍이 가족들과 떨어져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살아왔다. "그리운 곳은 있어도 익숙한 곳이 별로 없는데 하나를 꼽자면 녹두예요." 학부 신입생 신분으로 녹두에 왔다. 지방에서 올라와 급히 집을 구하다가 "설입(서울대입구역)에서 녹두로 옮긴 사람은 있어도 녹두에서 설입으로 옮긴 사람은 없다더라."는 친구의 취기 섞인 추천사를 듣고 내린 결심이었다. "들어켜보니 그 추천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정작 정이 들어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녹두를 "은근하나 선명한 활기가 있는 동네"로 묘사한다. 새벽 내음이 아직 만연할 때 일찍이 집을 나서면 이미 분주히 일하고 계신 웰빙마트 직원분들. 술 마신 다음 날 약간의 두통을 느끼며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서면 뭐가 그리 즐거운지 까르르 웃으며 삼삼오오 하교하는 학생들. 한낮의 열기가 어렴풋이 남아 있는 저녁 즈음 도립천으로 조깅을 하러 가면 맥주집 발코니에 앉아 활짝 웃고 떠드는 사람들. 길거리의 네온사인과 취객들. "시끄러운 곳은 시끄러워서 좋고, 고즈넉한 곳은 고즈넉해서 좋죠." 이런 은우의 모습에서 고작 5년을 함께한 고향에 대한 애정이 물씬 느껴진다.



한동희 - 제2 기숙사 입주민

녹두는 정문과 가까이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사회과대학 재학생들이 애용하는 제2의 기숙사다. 동희는 늘 학교를 걸어 다녔다. 열일곱에는 집 근처로 다니려고 장학금을 준다는 고등학교에 퇴짜를 놓더니, 스물부터는 강의실과의 거리만 보고 자취방을 구했다. "길바닥에 버리는 시간도 아깝고, 교통비도 부담이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힘차게 등교하고 감상에 젖어 하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두에 관한 추억은 대부분 등학교 일화다. 선선한 가을날 친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풀벌레가 잔잔한 배경음악을 깔아준다고 한다. 오르막 위나 아래로 해가 질 때면 보랏빛 하늘과 구름이 그의 마음을 파스텔톤으로 칠한다고 한다. 그래도 별다방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을 때면 이 공간이 조금 야속하다고 한다. 건물을 부수고 짓는 일이 그렇게나 많은데 별다방 하나 안 들어오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송창희 - 힙한(hip) 감성

그리고 2022년 개통한 신림선 경전철과 함께, 이 공간에 별다방이 들어설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하는 사람이 있다. 성수동 의류 편집샵에서 일할 정도로 '힙잘알(트렌드에 밝은 사람)'인 창희는 요즘 사람들에게 먹힐 녹두만의 감성이 있다고 한다. "주택과 가게가 얽혀있는게 망원동 같죠. 물론 교통이 훨씬 불편하고 맛있는 커피를 파는 곳은 적어요. 그래도 약간 오래되고 녹녹한 감성을 잃지 않으면서 불편함이 개선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는 녹두에서 '힙하게' 살아가고 있다. "집을 최대한 좋은 곳으로 신경써서 고르고 나름의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해 집에 로스쿨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이 많은데, 그러면 보통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드레스룸과 향수 진열대, 부분 조명과 미니바. 종환, 은우, 동희, 기자에게도 모두 익숙한 공간들이다. 비교적 저렴한 녹두 월세가 그에게 힙할 권리를 선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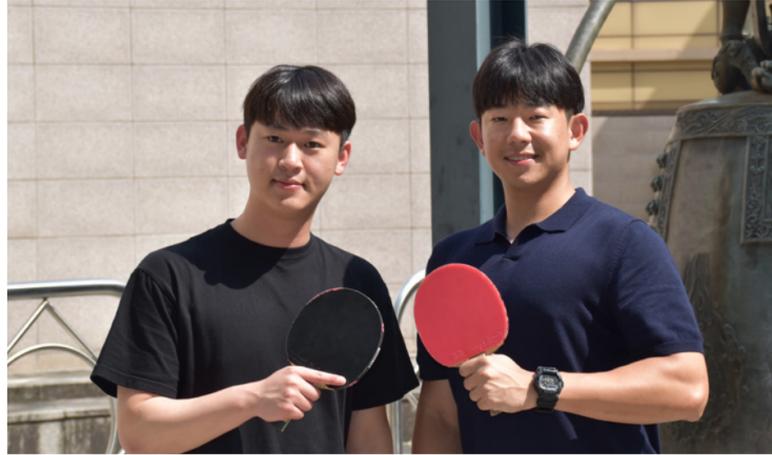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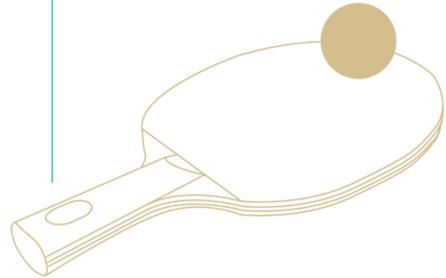


시간이 흐르는 공간

고통을 치유하는 음악 '블루스'는 힙합, 록, 발라드, 재즈 등 여러 장르의 자양분이라 평가받는다. 고시생의 고단한 대학동 블루스도 이제는 다양한 변주로 뻗어나가 녹두리는 공간을 다채롭게 색칠해줄기를 바란다. 종국적으로는 녹두가 일시의 거쳐, 초라하지만 빛났던 20대의 낭만이 떠오르는 '시간이 멈춘 공간'을 넘어서서 현재로도 충분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 흐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 만난 대학동 사람들이 이미 녹두를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다.

법학전문대학원 안에서 학생기자

Be 공식 탁구대회로 Be Happy한 로스쿨 만들기



김용원 · 이명원 학생

법학전문대학원 14기 김용원, 이명원 학생은 지난 5월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사비를 출연하여 소소한 상품을 걸고 교내 단식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추후 공식적 행사가 되기를 희망하며 대회명을 'Be 공식 탁구대회'로 정했다는 두 원우들을 인터뷰하며, 이번 대회를 일회성 이벤트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탁구를 통해 로스쿨에 활력을 보태고자 시도하려는 그들의 진지한 고민을 느꼈다.

Q. 대회의 경위나 결과, 대회로 얻은 점

김용원 · 이명원 | 이번 대회는 남녀부를 나누어 토너먼트로 진행했고, 남자 25명 여자 8명이 참여했습니다. 남녀 각 1, 2, 3등한테 배달 앱 쿠폰, 이야기 쿠폰 등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공식적인 대회가 아니었음에도 다들 기대 이상의 불타는 승부욕을 보여주셔서 즐거웠습니다.

Q. 시간과 사비를 쪼개면서 대회를 개최한 동기

이명원 |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인데, 학생회 봄 축제에 탁구 복식 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둘이 함께 출전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두어서 단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팀으로 안 맞는 것 같다. 갈라서자(웃음)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학생회 축제는 복식이었는데 저희가 단식도 개최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김용원 | 개인적인 동기라고 하면 이제 탁구대회를 통해서 로스쿨 사람들이 탁구에 많이 진심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스트레스를 풀 기회를 드리고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 복식 대회는 실력에 따른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 참가자들이 조금 참가를 망설이신 느낌이 있어서 남녀 각각 토너먼트를 열어서 더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Q. '로스쿨에서의 탁구'

이명원 |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탁구를 치고 나면 공부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도 있고, 체력도 증진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로스쿨에서의 탁구란 같이 즐겁게 공동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용원 | 열람실 1분 거리에 탁구장이 있다보니 탁구장을 가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 충동을 못 이기고 많이 갔었는데, 그만큼 거리가 가깝고 접근성이 좋다는 게 로스쿨 사람들이 이 탁구를 즐기는 데 한몫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Q. 탁구만의 장점

김용원 · 이명원 | 날씨에 상관없이 실내에서 즐길 수가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기도 하죠. (탁구는) 성별에 따른 유불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기교를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파워를 살릴 수도 있고, 각자 전략을 세우고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재밌는 스포츠입니다.

Q. 'Be 공식 탁구대회'의 향후 정보

김용원 · 이명원 | 매 학기 이런 대회를 한 번쯤 계속 개최하자 얘기했었고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면 타 로스쿨과 교류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최근 탁구 '단체전'이 새로 생겨서, 조별 단체전을 신설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Q. 탁구에 있어서 앞으로의 다짐

김용원 · 이명원 | 재미로 이 대회를 시작했는데 많은 분께서 좋게 봐주셔서 저희로서는 영광이고, 앞으로도 탁구를 통해서 원생 간 교류의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우분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면서 힐링하실 수 있도록 탁구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훈 학생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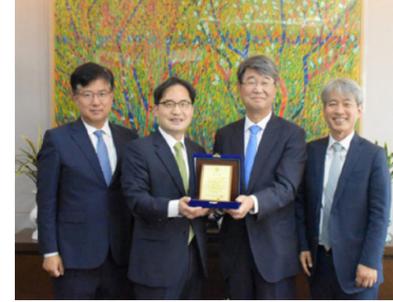
2022년 법학전문대학원 축제 '설로 봄' 열려

2022년 5월 3일과 4일 양일간, 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봄축제 '설로 봄'이 실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방역수칙 완화로 17동 앞 중앙광장과 주산홀 등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비대면 프로그램도 함께하여 총 네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호그와트 기숙사를 모티브로 미니게임과 단체사진 촬영을 병행하여 진행된 '로스카반의 죄수 with 해리포터', 이동진·이봉의·이재민·이정수·전종익·교수가 연사로 참여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삶과 법공부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이야기한 '토크콘서트',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이 원우들과 찍은 사진을 전시한 '사진전', 2인1팀 복식 종목으로 진행된 '탁구 토너먼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면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기대감과 함께, 열띤 참여 속에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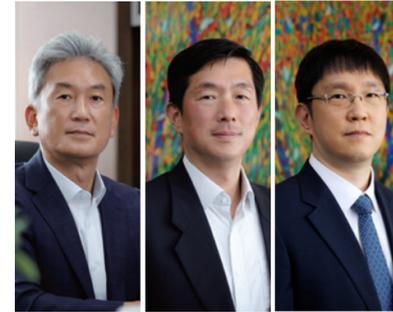
법무법인(유한) 지평 감사패 전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2022년 5월 23일 법무법인(유한) 지평의 김지형 대표변호사, 임성택 대표변호사에게 학교의 발전과 법학교육의 진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는 등 본교 법학교육에 기여해왔다.



제8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중보 교수 취임

김중보 교수가 2022년 6월 1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8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교무부원장은 전종익 교수가, 학생부원장은 최준규 교수가 맡았다. 김중보 원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전공분야는 행정법이다.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학과 교무부원장을 겸임했으며, 취임 전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서울법대 동창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창의적인 서울법대인' 시상

서울법대 동창회는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을 선정하고 지난 6월 10일 열린 2022년도 정기총회에서 시상하였다. 제30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는 김두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명예회장(법대 11회), 최병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법대 29회),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법대 32회) 3인이 선정되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제2회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으로는 이영덕 (주)한솔 대표이사 회장(법대 27회)과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대 35회) 2인이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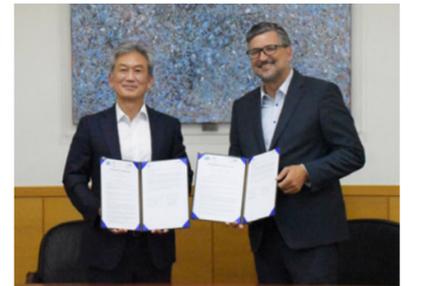
공개강좌 금융법무과정 제14기 수료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개강좌 금융법무과정 제14기 수료식이 2022년 6월 1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핀테크의 법률문제'를 주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실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60명이 수료하였다.



WTI(World Trade Institute)와 국제학술교류 MOU 체결

2022년 7월 6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WTI(World Trade Institute)와의 국제학술교류 협력 협정을 연장 체결하였다. 서울대학교 법학관 17동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김중보 교수와 WTI 부소장 Manfred Elsig 교수가 참석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WTI는 2017년에 체결한 MOU를 연장 체결한 것으로, 상호 관심 영역에서의 경험 및 지식 교환, 교원과 학생 교환프로그램, 공동연구 프로젝트 등 학술교류 네트워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WTI는 스위스 베른대학교의 센터로, 유럽 대학 연구소(EUI)와 함께 연례 세계 무역 포럼을 조직하고 있다. 학위 프로그램에는 박사 과정(경제 세계화 및 통합 대학원을 통해 제공), 통합 LL.M. 국제 무역 및 투자 법률 및 경제학의 DAS 프로그램, 국제 무역 규제의 MAS 프로그램(국제법 및 경제학 석사 또는 MILE), 국제법 및 경제학의 수료증 및 디플로마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 우승

2022년 8월 19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제13회 세계 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MOOTsion: I'm Possible' 팀이 우승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의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로 통상 전문인력 육성과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 교류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15개팀, 총 49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상의 중립국 국제적 무역 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수량제한 등 무역조치를 했을 때 이것이 WTO 협정에 위배하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이 주된 논점이었다.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팀 수상

순잡고,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후원한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2022년 8월 2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역대 최다인 20개 팀이 예선에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 서울대 로스쿨 '김해니, 송현정, 구민재'팀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을, '양현준, 오한결, 이현아'팀이 노란봉투법상을 각각 수상하였다.

택배노동자의 쟁의행위와 이와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다룬 이번 대회의 집행위원장 송영섭 변호사는 “모두에게 상을 드리는 게 마땅할 만큼 참가자 모두가 멋진 변론을 보여주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제9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팀 우승

2022년 8월 23일에 치러진 제9회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결선에서 서울대 로스쿨의 (유창준, 김병렬, 이승현)팀이 특허법원장상(1위)을 (박진원, 오재완, 탁수진)팀이 특허청장상(2위)을 수상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은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참가자들이 특허소송 및 상표소송의 가상사례에 대해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본선에서는 원피고로 나누어 변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4월 29일부터 5개월 동안 진행된 이번 대회는 총 17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68팀, 200여명의 팀이 참가하였으며, 3년만에 특허법원 법정현장에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개 팀 각 대상·최우수상·장려상 등 수상

2022년 8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제7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국민권익위원회 주최)'가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본-결선 대회에는 8개 팀 41명이 참가했으며 그 중 5개 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서울대) 소속이었다. 각 팀은 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소액채당금 환수액 납부독촉 취소'를 주제로 공방을 펼쳤다.

이날 대회에서 서울대 '우리지금모행(14기 김상균, 이정민, 하성창, 최민서, 최승훈, 이원호)'팀이 최종 우승하여 대상과 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서울대 '진정구제설' 팀은 최우수상 및 상금 300만 원, 서울대 '방학때모행', '삼사오오', '아이깨끗행' 팀은 각 장려상 및 상금 100만 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

과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 주시길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2021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2021학년도 후기 법학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이 2022년 8월 29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기념관 주산홀에서 개최되었다.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인사말씀, 축사, 답사, 학위수여, 교가제창, 폐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보 원장은 팬데믹 이후 첫 대면 졸업식이 뜻깊다며, 특히 학술박사가 주로 배출되는 후기 졸업식만큼 어려운 학문적 과정을 겪어낸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격려했다. 서울법대 우창록 동창회장 또한 “그동안 배운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앞날을 멋지게 개척해나가시길 바란다”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전문박사 1명, 전문석사 1명, 일반석사 17명, 일반박사 15명을 포함하여 총 34명에 대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졌다.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성료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 로스쿨생 60여명이 참여한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이 2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8월 19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5동 송상현홀)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은 “2022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센터장 전원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안)의 공동주최로 공익인권 분야에 관심 있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하계 실무수습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8월 8일부터 8월 19일까지 사회복지,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노동, 이주·외국인, 장애, 정보인권, 경제, 환경, 시민사회, 국제연대 등 13개 분야의 20개 협력단체가 함께했으며,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59명의 재학생이 참여하였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저자 초청 북토크, 학생들의 활동발표, 공익인권단체·공익변호사·참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친목을 다지는 네트워킹 시간으로 프로그

램이 진행되었다. 오전에 진행된 북토크에서는 「이름이 법이 될 때」의 저자 전해진 국선전담변호사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태완이 법’, ‘사랑이 법’ 등 개인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 법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그 법을 둘러싼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전해진 변호사가 사건의 당사자 및 유가족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과정과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20개 단체에서 활동한 각 학생 대표들의 활동 발표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2주간 각자의 활동을 소개하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의 법을 이슈를 직접 다루어보고, 학생 신분으로 접하기 어려운 활동들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 “선배 법조인들의 생활을 보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 설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이어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참여한 로스쿨 학생들과 협력단체 활동가, 공익변호사들이 모두 모여 친목을 다지고 관심분야와 진로에 대한 고민 등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공익 분야에 대한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하는 분들을 만나며 공익인권 운동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진로 설정은 물론 예비법조인으로서 동기부여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남겼다.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 사건을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무실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공익·인권 분야의 프로보노 활동을 통해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공격가치 및 윤리,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학내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법률구조 활동 및 공공입법 정책 제안 등의 활동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 SNU Law 연구자포럼 제2기 논문발표회 및 수료행사 개최

학문후속세대양성센터(센터장 전상현)는 2022년 8월 20일 SNU Law 연구자포럼 제2기 논문발표회 및 수료행사를 17동 1층 세미나실과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논문발표회에서는 김웅재 교수, 박상철 교수 및 센터 소속 교수를 모시고, 참여 연구자의 논문발표회 논평을 진행하고 조연을

언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료행사에서는 전종의 교무부원장을 비롯하여 제1, 2기를 이끈 공두현, 정준혁 교수를 모시고,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3기부터는 이성범 교수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오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연구자를 모집한다.



국제학생지원센터 설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학생지원센터(센터장 최준규)가 2022년 8월 22일자로 설립되었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학하는 국제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이다. 국제학생의 연구와 행정 및 생활을 지원하는 센터로서, 향후 세계적인 한국법 연구자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센터 소식

제82회 & 제83회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2년 4월 1일 '플랫폼 시대의 전문직 규제'라는 주제로 제8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전문)의 사회로 박유리 센터장(KISDI 플랫폼정책연구소)이 '법률분야 전문직플랫폼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1주제]로, 한현욱 교수(차의과대학 정보의학연

구소)가 '의료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2주제]로, 박종현 교수(국민대 법과대학)가 '세무분야 전문직 플랫폼의 쟁점과 과제'라는 [제3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문)가 사회를 맡았고 박상수 부협회장(대한변호사협회), 이정근 부회장(대한의사협회), 김신언 연구이사(한국세무사회), 신민수 교수(한양대 경영대학),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전성민 교수(가천대 경영학부), 장웅선 실장(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 고희우 과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2022년 5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최근 발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제83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전문)가 사회를 맡은 [제1주제] 발표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과 맞춤형 광고에 관한 공정거래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점에서의 규율-독일에서의 Facebook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채성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발표하였다. [제2주제] 발표에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이창범 겸임교수(연세대 법대대학원)가 발표하였고, [제3주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산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문)가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전문),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문), 이동진 교수(서울대 법전문), 윤주호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수원 박사(카카오), 전승재 변호사(토스뱅크),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 이정렬 국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2022년 5월 31일, 등재학술지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를 발행하였다.



제84회 공익산업법센터 학술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022년 7월 1일 '망 이용대가의 본질과 그 쟁점'이라는 주제로 제84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전문)의 사회로 조대근 박사(법무법인 광장)이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몇가지 궁금증들-인터넷의 시작, 원칙, 거래의 진화를 중심으로'라는 [제1주제]로, 정인석 교수(한국외대 경제학부)가 'ISP, CP, Zero Price Rule'이라는 [제2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권남훈 교수(건국대 경제학과), 김성환 교수(아주대 경제학과), 정광재 박사

(KISDI), 이성엽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전문), 조영훈 실장(SKB), 류승근 변호사(넷플릭스), 김준모 과장(과학통신부), 고낙준 과장(방송통신위원회)이 종합토론자로 참여하였다.



공익인권법센터 목요공익 세미나 개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이우영)는 2022년 1학기에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실현을 위한 제도의 모색”이라는 큰 연구 주제 아래 총 3회의 목요공익(목공) 세미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였다. 2022년 5월 12일에 서울대학교 17동 서암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1회 목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재생산권리의 개념과 성격'이라는 주제로 오승이 판사(서울가정법원)가 발표하였다. 공두현 교수(서울대 법전문), 나영 대표(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SHARE)가 토론패널로 참여하였다.



2022년 6월 2일에 서울대 17동 서암홀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2회 목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낙태죄 효력상실 이후 의료적 측면에서 본 현실'이라는 주제로 오정원 교수(순천향대 산부인과), 김세롬 박사(시민건강연구소), 윤정원 의사(국립중앙의료원), 최영준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이 발표토론에 참여하였다.



2022년 6월 30일 서울대 17동 서암홀에서 온/오프 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제3회 목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신필식 박사(서울여성역사문화공간 여담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한국의 성교육 현실, 성과 재생산 주체로서의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이윤경 전 활동가(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 양지혜 활동가(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 서한솔 교사(서울상천초등학교), 윤나현 센터장(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이 발표토론에 참여하여 풍성한 논의를 하였다.



경쟁법센터 ‘2022년도 제1차 법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센터장 이봉의)는 2022년 6월 10일 그랜드센트럴 오토리움에서 “플랫폼 심사지침의 주요쟁점과 새정부의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2022년도 제1차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예고 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정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심사지침 제정안”의 주요쟁점을 분석 하는 자리로 마련되어, 최남철 현 교수(연세대 법전문)의 사회로 좌장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와 6인의 패널김성환 교수(아주대 경제학부),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문), 유성욱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윤성운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임용 교수(서울대 법전문), 정영진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가 자유로이 토론하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쟁법센터 ‘2022년도 제2차 법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는 2022년 6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개회사와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 前 정책위의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개최하여, 제1세션에서는 동일인·동일인 관련자의 개념 및 기업집단의 범위 확정 개선방안이라는 주

제 아래에 신현운 회장(한국공정경제연합회)을 좌장으로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발표와 김두진 교수(부경대 법학과),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전문), 황원철 국장(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2세션에서는 ‘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좌장 신동권 석좌교수(한국해양대학교, KDI 연구위원)의 진행 하에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전문)의 발표와 김진호 변호사(김앤장법률사무소),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전문), 황태희 교수(성신여대 법학부)의 토론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경제의 글로벌화가 심화하고 대기업집단의 지배행태가 다소 개선되는 등 환경의 변화를 맞이한 공정거래 규제를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21세기 기업집단규제법제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관련 후속 세미나가 지속해서 개최될 예정이다.



법이론연구센터 콜로키움 개최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센터장 김도균)는 법의 근본 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의 콜로키움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에는 총 네 번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먼저 2022년 3월 23일에는 제36회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이진민 작가(정치철학자, 『다정한 철학자의 미술관 이용법』 저자)가 “정의(justice)는 어떻게 그려야 할까: 클림트와 슈클라”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진민 작가는 클림트의 그림 <법학>을 소재로 삼아 ‘정의’보다 ‘불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철학자 주디스 슈클라의 이론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2022년 4월 27일에는 제37회 콜로키움을 열어, 김건우 교수(광주과학기술원)가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도전: 의의와 한계”라는 주제를 다뤘다. 김건우 교수는 폴란드 법철학자 토마스 피트르 지코우스키(Tomasz Pietrzykowski)의 법인격에 관한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자연주의적 법인격론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였다.

2022년 5월 25일 제38회 콜로키움에서는 송윤진 연구위원(서울대 법이론연구센터)이 “사법적 감정과 감정 규제 모델: 테리 마로니(Terry A. Maroney)의 ‘Angry Judges’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송윤진 연구위원은 ‘법과 감정’에 대한 마로니의 주요 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사법적 감정의 문제를 고찰하고 사법 판단에서 감정의 역할을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8월 17일에는 제39회 콜로키

움을 개최하여, 김공희 교수(경상국립대 경제학부)가 “기본소득의 본질과 한계: 그 정당화 논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김공희 교수는 역사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밝혔다.

2022년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공모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는 <2022년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사업을 시작하여 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기초법학 분야의 논문을 공모한다.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법무법인 울촌·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공모에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법학 관련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기초법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논문을 모집한다. 심사를 통해 대상으로 선정된 1편의 논문에 대해서는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논문 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된다. 논문 발표회와 시상식은 2023년 1월 말에 열릴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법대 홈페이지 일반게시판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제2회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

울촌 기초법학 논문상은 기초법학 분야에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울촌·사단법인 온율이 후원하는 학술상이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대학원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공모 논문	제출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법학(사법, 당사법, 법원, 행정법 등) 분야에 대한 논문을 1편 (최대 20페이지)로 작성 심사 대상 논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생 심사 대상 논문: 법학전문대학원생 또는 대학원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 울촌@law.snu.ac.kr (24시간) 파일명: [학과명] [성명] [제출번호] 첨부파일: 심사표 (필수), 심사표 (선택), 심사표 (선택) 						
공모 자격	공모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법학전문대학원(법전문) 재학생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법학, 연구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가 신청 및 논문 제출 기간: 2022. 11. 14.(화) ~ 11. 30.(수) 심사 결과 발표: 12월 중순까지 발표 및 개별 연락 논문 발표회 및 시상식: 2023년 1월 중 예정 						
시상 및 상금							
<table border="1"> <tr> <th>대상</th> <th>1등</th> <th>상금 300만 원</th> </tr> <tr> <th>우수상</th> <th>2등</th> <th>상금 100만 원</th> </tr> </table>	대상	1등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등	상금 100만 원	
대상	1등	상금 300만 원					
우수상	2등	상금 100만 원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문의: legaltheory@naver.com | TEL: 02-880-5184
08296 서울법대 법이론연구센터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6-312호

자세한 모집요강 등은 공모포의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최 | 서울대학교 법이론연구센터 후원 | 법무법인 울촌, 사단법인 온율

‘중국법의 현황과 최신 동향’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소장 이재민)는 2022년 2월 18일 한중법학회와 ‘중국법의 현황과 최신 동향’ 학술대회를 공동주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션1에서 한상돈 아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중국 공법을 논의하였고, 세션2에서는 최승환

경희대 교수를 좌장으로 둔 중국 사법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공법에 관해서는 ‘중국 헌법의 개정과 최신 동향’(강광문 서울대 교수), ‘중국 행정법의 최근 동향’(정이근 영산대 교수), ‘중국의 사법해석제도와 안례지도제도’(김영미 법제처 과장) 등이 논의되었고, 사법 분야에서는 ‘중국 민법전의 제정에 관하여’(김성수 경찰대 교수), ‘중국 민사소송법의 최근 변화’(이창범 삼성전자 법무팀), ‘중국 형법과 형사법의 최근 동향’(장지희 중국 변호사)에 관련된 발표가 이어졌다. 마지막 종합토론 및 Q&A 세션에서는 공법 분야의 정성운 검사, 사법 분야의 이규엽 한국대성자산운용 대표이사의 토론을 최신 동향의 함의와 향후 논의방향을 검토하였다.



The Willem Vis Pre-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 of Seoul 2022 개최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대안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가 공동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통상거래법센터가 진행한 The Willem Vis Pre-Moot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ition of Seoul 2022가 2022년 2월 19일(토) 온라인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대회는 APEX, 태평양, 충정, 지평, KCL, 김앤장, KL Partners, 세종, 광장, 화우, 울촌, Peter & Kim 등의 로펌이 후원하였고, 다양한 국적의 법전문생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Best Submission상은 SNU Vis Moot (서울대 법전문), Submission of High Quality상은 IAA(연세대 법전문), SRKVS(Rajiv Gandhi National University of Law)가 차지하였다. Best Orator상은 준결승에서는 김수빈(이화여대 법전문), 김예지(서울대 법전문)가, 결승에서는 윤혜원(연세대 법전문)이 차지하였다. 또한 Best Efforts상은 Tsinghua Law 2022 Vis Team(Tsinghua University)가 수상하였다. 그리고 이번 대회의 최종 순위로는 2위에 J Five(한동대 법전문), 1위에 IAA(연세대 법전문)가 선정되었다.



릴레이 도서 추천

릴레이 도서 추천은 법대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때로는 휴식하면서 읽을만한 책을 여러 교수들이 차례로 추천하는 특집입니다.



법학의 탄생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서양의 어떠한 법학을 어떻게 수용한 것인지 탐구한 책. 일본법학이 한국법학에 미치는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지만, 한국 근대법학의 시작이 일본을 통해 계승된 서양법학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서양법학의 계승과정에서 일본 법학자들이 취한 ‘화혼양재’의 입장이 일본 근대법학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서, 일본을 통한 근대법 계승과 과연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굽씹어보게 된다.

우치다타카시 | 박영사 | 2022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다산 정약용이 18년 유배생활 동안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서간집.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외롭고 불쌍하게 지내면서 밤낮으로”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마음속에 담긴 뜨거운 마음을 쏟아” 보낸 편지들이 담겨 있다. 다산은 벼슬길은 막혔어도 성인(聖人)이나 문장가는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들들을 끊임없이 채찍질한다. 아들들에게 읽을 책을 권하고 질문에 답하는 편지에서, 다산 사상의 편린을 엿보고 학문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엄격한 아버지의 질책의 말 속에 자신으로 인해 어려운 시절을 견뎌 나가야 할 아들들에 대한 그리움과 안쓰러움이 묻어난다.

정약용 | 창비 | 2019



내 이름은 빨강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궁정 화원을 배경으로 한 역사소설이자 추리소설. 원근법으로 대변되는 서양화 기법의 영향으로 이슬람 전통의 세밀화가 쇠락하는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 장마다 화자를 바꾸는 독특한 형식의 소설이다. 주요 인물 모두 화자가 되어 자신의 말로 사건과 입장을 전달한다. 심지어 나무, 말 같은 동·식물, 무생물인 금화도 화자로 등장한다. 피살당한 피해자가 첫 번째 화자로 소설의 문을 연다. 소설의 첫 문장은 “나는 지금 우물 바닥에 시체로 누워있다.”

오르한 파묵 | 민음사 | 2019



헤어질 결심 각본

아마도 한국 영화의 고전이 될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의 오리지널 각본. 영화에서 스쳐 지나간 순간들을 곱씹기 위해 읽기 시작했으나, 각본과 영화의 차이를 발견하는 재미도 만만치 않다. 영화를 보고, 각본을 본 후, 다시 한번 영화를 보기를 권한다.

정서경 박찬욱 | 율유문화사 | 2022

SNU Law 人 캠페인 안내

SNU Law 人 캠페인은 매월 1만 원(1구좌)으로 서울법대를 후원하는 정기후원 캠페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서울법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SNU Law 人 기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사회공헌기금** — 공적마인드를 갖춘 법률가 및 사회적 리더의 자격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 교육장학기금** —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울법대 人을 양성
- 학술연구** — 미래지향적인 법학 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자로서 서울법대 人을 양성
- 일반기금** — 서울법대 교육 및 인프라 구축

• SNU Law 人에게 드리는 혜택

- 세제 혜택**
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네이밍 예우**
서울법대 홈페이지, 정의의 종 등에 기부자 명단 게재
-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1만 원(1구좌) 이상의 정기후원을 약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SNU Law Family 머그컵 증정

• SNU Law 人 캠페인 참여방법

- 온라인 기부페이지(신용카드, 계좌이체, CMS 신청가능)
· <http://secure.donus.org/snulaw>
·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온라인 기부페이지로 연결 됩니다.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로 연락주시면 참여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전화. 02.880.2448
이메일. lawgiving@snu.ac.kr
카카오톡. [snulatfund](https://open.kakao.com/o/snulatfund)

Next Decade 기금 (발전 기금) 안내

서울법대의 미래는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약정문의

- 전화·이메일**
전화 및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방문**
방문해 주시면 출연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에 약정이 진행됩니다.
- 전화. 02.880.2448
팩스. 02.889.7196
이메일. lawgiving@snu.ac.kr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동 210호

세제 혜택

- 개인기부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 공제)
- 법인기부자**
당해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세제혜택 비교**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 시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지정기부금에 비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구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개인	법인	개인	법인
내용	사립학교, 국가지방단체, 이계민을 위한 구호물품 등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사회복지, 문화예술, 종교단체 등公益性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소득금액의 30%	소득금액의 10%
해당기관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여타 기관	

법학발전재단 및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22. 3. 1 — 2022. 8. 31

김민형	600,000	2022.03.02	박상록	10,000	2022.04.05	최지석	10,000	2022.05.25
(사)한국도선사협회	15,000,000	2022.03.02	이윤진	10,000	2022.04.05	홍석재	50,000	2022.05.25
정철호	10,000	2022.03.07	김효준	10,000	2022.04.05	ALP 32기	30,000,000	2022.06.08
김정민	10,000	2022.03.07	박정현	10,000	2022.04.05	정철호	10,000	2022.06.08
강윤구	10,000	2022.03.07	지승민	30,000	2022.04.05	김정민	10,000	2022.06.08
이종준	10,000	2022.03.07	구현정	10,000	2022.04.05	강윤구	10,000	2022.06.08
윤아현	10,000	2022.03.07	홍성혜	10,000	2022.04.05	이종준	10,000	2022.06.08
석소현	10,000	2022.03.07	신동일	70,000	2022.04.05	윤아현	10,000	2022.06.08
이창규	10,000	2022.03.07	이범재	1,000,000	2022.04.11	석소현	10,000	2022.06.08
이종화	50,000	2022.03.07	이의영	30,000	2022.04.11	이창규	10,000	2022.06.08
유석호	50,000	2022.03.07	강희철	100,000	2022.04.12	이종화	50,000	2022.06.08
이현선	50,000	2022.03.07	강민구	50,000	2022.04.20	유석호	50,000	2022.06.08
오태욱	100,000	2022.03.07	이경준	100,000	2022.04.20	이현선	50,000	2022.06.08
신혜주	50,000	2022.03.07	김하영	50,000	2022.04.25	오태욱	100,000	2022.06.08
박진호	10,000	2022.03.07	방윤섭	100,000	2022.04.25	신혜주	50,000	2022.06.08
김지수	10,000	2022.03.07	유홍수	100,000	2022.04.25	박진호	10,000	2022.06.08
김다연	30,000	2022.03.07	육지희	10,000	2022.04.25	김지수	10,000	2022.06.08
박은정	10,000	2022.03.07	전일호	10,000	2022.04.25	김다연	30,000	2022.06.08
박상록	10,000	2022.03.07	정병기	10,000	2022.04.25	박은정	10,000	2022.06.08
이윤진	10,000	2022.03.07	최지석	10,000	2022.04.25	박상록	10,000	2022.06.08
김효준	10,000	2022.03.07	홍석재	50,000	2022.04.25	이윤진	10,000	2022.06.08
박정현	10,000	2022.03.07	오경빈	10,000,000	2022.04.27	이의영	30,000	2022.06.10
지승민	30,000	2022.03.07	정철호	10,000	2022.05.09	ALP 32기	20,000,000	2022.06.10
구현정	10,000	2022.03.07	김정민	10,000	2022.05.09	김효준	10,000	2022.06.14
홍성혜	10,000	2022.03.07	강윤구	10,000	2022.05.09	박정현	10,000	2022.06.14
신동일	70,000	2022.03.07	이종준	10,000	2022.05.09	지승민	30,000	2022.06.14
이의영	30,000	2022.03.10	윤아현	10,000	2022.05.09	구현정	10,000	2022.06.14
노주환	30,000	2022.03.12	석소현	10,000	2022.05.09	홍성혜	10,000	2022.06.14
청호불교문화원	4,654,300	2022.03.17	이창규	10,000	2022.05.09	신동일	70,000	2022.06.14
강민구	50,000	2022.03.21	이종화	50,000	2022.05.09	강희철	100,000	2022.06.14
이경준	100,000	2022.03.21	유석호	50,000	2022.05.09	이경준	100,000	2022.06.20
김하영	50,000	2022.03.25	이현선	50,000	2022.05.09	김하영	50,000	2022.06.27
방윤섭	100,000	2022.03.25	오태욱	100,000	2022.05.09	방윤섭	100,000	2022.06.27
유홍수	100,000	2022.03.25	신혜주	50,000	2022.05.09	유홍수	100,000	2022.06.27
육지희	10,000	2022.03.25	박진호	10,000	2022.05.09	육지희	10,000	2022.06.27
익명	20,000	2022.03.25	김지수	10,000	2022.05.09	전일호	10,000	2022.06.27
전일호	10,000	2022.03.25	김다연	30,000	2022.05.09	정병기	10,000	2022.06.27
정병기	10,000	2022.03.25	박은정	10,000	2022.05.09	최지석	10,000	2022.06.27
최지석	10,000	2022.03.25	박상록	10,000	2022.05.09	홍석재	50,000	2022.06.27
홍석재	50,000	2022.03.25	이윤진	10,000	2022.05.09	정철호	10,000	2022.07.05
정계환	100,000	2022.04.02	이의영	30,000	2022.05.10	김정민	10,000	2022.07.05
정철호	10,000	2022.04.05	백옥자	384,051	2022.05.12	강윤구	10,000	2022.07.05
김정민	10,000	2022.04.05	김효준	10,000	2022.05.13	이종준	10,000	2022.07.05
강윤구	10,000	2022.04.05	박정현	10,000	2022.05.13	윤아현	10,000	2022.07.05
이종준	10,000	2022.04.05	지승민	30,000	2022.05.13	석소현	10,000	2022.07.05
윤아현	10,000	2022.04.05	구현정	10,000	2022.05.13	이창규	10,000	2022.07.05
석소현	10,000	2022.04.05	홍성혜	10,000	2022.05.13	이종화	50,000	2022.07.05
이창규	10,000	2022.04.05	신동일	70,000	2022.05.13	유석호	50,000	2022.07.05
이종화	50,000	2022.04.05	강희철	100,000	2022.05.13	이현선	50,000	2022.07.05
유석호	50,000	2022.04.05	강민구	50,000	2022.05.20	오태욱	100,000	2022.07.05
이현선	50,000	2022.04.05	이경준	100,000	2022.05.20	신혜주	50,000	2022.07.05
오태욱	100,000	2022.04.05	김하영	50,000	2022.05.25	박진호	10,000	2022.07.05
신혜주	50,000	2022.04.05	방윤섭	100,000	2022.05.25	김지수	10,000	2022.07.05
박진호	10,000	2022.04.05	유홍수	100,000	2022.05.25	김다연	30,000	2022.07.05
김지수	10,000	2022.04.05	육지희	10,000	2022.05.25	박은정	10,000	2022.07.05
김다연	30,000	2022.04.05	전일호	10,000	2022.05.25	박상록	10,000	2022.07.05
박은정	10,000	2022.04.05	정병기	10,000	2022.05.25	이윤진	10,000	2022.07.05

이의영	30,000	2022.07.11	강윤구	10,000	2022.08.08	한화손해보험(주)	15,000,000	2022.08.23
김효준	10,000	2022.07.12	이종준	10,000	2022.08.08	청호불교문화원	6,649,000	2022.08.23
박정현	10,000	2022.07.12	윤아현	10,000	2022.08.08	(주)한화건설	15,000,000	2022.08.24
지승민	30,000	2022.07.12	석소현	10,000	2022.08.08	한화투자증권	15,000,000	2022.08.24
구현정	10,000	2022.07.12	이창규	10,000	2022.08.08	김하영	50,000	2022.08.25
홍성혜	10,000	2022.07.12	이종화	50,000	2022.08.08	방운섭	100,000	2022.08.25
신동일	70,000	2022.07.12	유석호	50,000	2022.08.08	유홍수	100,000	2022.08.25
강희철	100,000	2022.07.12	이현선	50,000	2022.08.08	육지희	10,000	2022.08.25
이경준	100,000	2022.07.20	오태욱	100,000	2022.08.08	전일호	10,000	2022.08.25
재단법인 나은	200,000,000	2022.07.21	신혜주	50,000	2022.08.08	정병기	10,000	2022.08.25
김하영	50,000	2022.07.25	박진호	10,000	2022.08.08	최지석	10,000	2022.08.25
방운섭	100,000	2022.07.25	김지수	10,000	2022.08.08	한화디펜스(주)	15,000,000	2022.08.25
유홍수	100,000	2022.07.25	김다연	30,000	2022.08.08	한화생명보험(주)	15,000,000	2022.08.25
육지희	10,000	2022.07.25	박은정	10,000	2022.08.08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15,000,000	2022.08.25
전일호	10,000	2022.07.25	박상록	10,000	2022.08.08	한화솔루션(주)	15,000,000	2022.08.25
정병기	10,000	2022.07.25	이윤진	10,000	2022.08.08	한화시스템(주)	15,000,000	2022.08.25
최지석	10,000	2022.07.25	이의영	30,000	2022.08.10	홍석재	50,000	2022.08.25
홍석재	50,000	2022.07.25	노주환	30,000	2022.08.12	노주환	10,000	2022.08.26
정철호	10,000	2022.08.08	노주환	30,000	2022.08.21	한화토탈 주식회사	15,000,000	2022.08.26
김정민	10,000	2022.08.08	이경준	100,000	2022.08.22	(재)청파장학재단	13,298,000	2022.08.26

* 기부정보는 기부자의 익명약정 요청 및 신청서가 미접수된 경우 해당 정보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 우 안 내

기부금액에 따라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서 제공하는 예우 프로그램과 서울법대의 특별 예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분	내용	50억 원	10억 원	5억 원	1억 원	5천만 원	1천만 원	1백만 원
기념품 및 간행물	총장 명의 감사패, 원장 명의 감사패	•	•	•	•	•	•	감사장
	기념품(본부, 법대), 간행물(본부, 법대), 달력, 생일카드	•	•	•	•	•	•	•
관악 명예 동문 특별초청	입학식, 개교기념식	•	•	-	-	-	-	-
	총장실 초청 약정식 및 감사패	•	•	•	•	-	-	-
	캠퍼스투어, 장학금 수여식	•	•	•	•	-	-	-
	기부자 초청 음악회, 전시회	•	•	•	•	•	•	-
	법대 행사 초청	•	•	•	-	-	-	-
	홍상	•	-	-	-	-	-	-
	부조	•	•	-	-	-	-	-
	기부자 리포트(본부, 법대)	•	•	•	•	•	-	-
	법대 명예의 전당(17동 1층) 명패 보존, 행정관 명예의 전당, 연구공원 명예의 전당(1억원 이상)	•	•	•	•	•	•	-
	교내 주요 행사 초청	•	•	•	•	•	-	-
학교시설 이용편의	총장 공간 만찬 초청	•	-	-	-	-	-	-
	관악캠퍼스 무료주차	•	•	•	•	-	-	-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관람	•	•	•	•	•	•	-
	호암교수회관 및 서울대 기념품 할인	•	•	•	•	•	•	-
	중앙도서관 본관 이용	•	•	•	•	•	•	•
	평생교육원 수강료 할인	•	•	•	•	•	•	기한
	법학도서관 이용	•	•	•	•	•	•	•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입학추천권	•	•	•	•	•	-	-
서울대병원 이용편의	건강검진 주선 및 진료예약	평생	평생	기한	기한	-	-	-
	의전서비스	평생	10년	기한	기한	-	-	-
	근조기	•	•	•	•	•	•	-

SNU Law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Tel. 02-880-7530
Fax. 02-889-7196

<http://law.snu.ac.kr>